



파견교환학생 결과보고서

성명		전북대 소속 (학과명)	
해외 파견대학	프랑스 / 라로셀대학	해외파견대학 전공	전공없음
파견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1학기 <input type="checkbox"/> 1년		
학기 시작일	2025/09/01	학기 종료일	2025/12/08
출국일	2025/08/28	귀국일	2025/01/08

1. 수업 및 교내외 활동

수업	이수과목	1학기	
		2학기	Corporate communication Culture et civilisation anglo-pacifique Introduction à la civilisation nord-américaine FLE A1 (기초 프랑스어 A1)
	수업방식	강의실 대면 강의	
	시험방법	퀴즈형식, 논술형, 발표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지, 프랑스어로 진행되는지 잘 확인 해야 함.	
그 외 활동 (해당되는 경우 작성)	동아리		
	문화프로그램	학생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파티들	
	기타		
교내편의시설	식당, 도서관, 자판기 등		

2. 귀국 준비

기숙사/숙소 (기숙사참고사항, 퇴 실 절차, 납부방법 및 시기)	기숙사는 한 달 전 미리 퇴실 신청을 해야 함. 퇴실 시에는 청소 검사를 시행. 보증금은 퇴실 후 환급.		
각종 해지 사항 (보험, 은행 등)	TGV MAX 구독권 해지 Free mobile 유심 해지 Caf 해지		
기타참고사항	기숙사 퇴실 신청이나 휴대폰 유심 해지 등 최소 귀국 1달 전까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둘 것		



3. 소감문 (1페이지로 작성, 맑은 고딕, 10포인트, 왼쪽 정렬)

<p>파견교에 대한 정보 및 숙소에 대한 정보 (캠퍼스, 주변환경 등)</p>	<p>학교는 기숙사에서 도보 30분 정도 거리에 있어 버스를 타거나 일찍 나와서 걸어가야 함. 학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많이 있고, 가격이 3유로대로 저렴한 편임. 숙소와 학교 근처에 시내와 바다가 있어 접근성이 좋음.</p>
<p>날씨, 숙소, 식사, 비용(물가) 등에 대한 정보</p>	<p>전반적으로 날씨는 한국보다 온화함. 9월에서 11월초까지는 날씨가 맑고 좋지만, 겨울에는 비 오는 날이 많고 바람이 많이 불음. 기숙사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1인실 기숙사를 사용했는데 쾌적하고 좋았음. 외식 물가는 매우 비싼 편이지만, 마트 물가는 한국과 비슷하기 때문에 요리를 해 먹는 것이 좋음.</p>
<p>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에 대한 정보</p>	<p>병원을 가는 것은 어렵지만, 약국은 곳곳에 많이 있기에 필요한 약은 쉽게 구할 수 있음. 은행 계좌는 생활 편의를 위해 만드는 것이 좋고, 어플을 통해 쉽게 만들 수 있음. 우버 등 택시는 비싸지만, 버스는 1유로대로 탑승 가능. 또한 버스, 기차 모두 정기권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예정이라면 정기권 구매를 추천. 전파나 데이터가 안터지는 곳이 꽤 있음. 하지만 와이파이는 대부분의 장소에 있어 와이파이 사용을 많이 했음.</p>
<p>사전 준비와 현지 생활과의 차이, 문화충격 등</p>	<p>캠핑스프랑스, 비자 등 사전에 지출한 비용이 상당했지만, 도착해서도 체류비, 주택 보험 등 지출이 크게 있었음. 한국처럼 주변에 화장실이 많이 없으며, 있다고 해도 유료거나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이 다소 불편했음.</p>
<p>파견교 국제교류부 (진행되는 프로그램, 도움받았던 내용 등)</p>	<p>학기 초, 국제교류부에서 주관하는 파티로 다른 학교에서 파견 온 교환학생들이나 현지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p>
<p>파견교환학생 관련 건의사항 또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p>	<p>라로셀이라는 지역이 인지도가 낮은 지역이라 많이 낯설지만 생활하기에 충분히 좋았고, 이 곳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은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p>

파견교환학생 결과보고서

성명		전북대 소속 (학과명)	
해외 파견대학	프랑스 / 라로셀대학	해외파견대학 전공	x
파견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1학기 <input type="checkbox"/> 1년		
학기 시작일	2025/09/04	학기 종료일	2025/12/18
출국일	2025/08/28	귀국일	2026/01/07

1. 수업 및 교내외 활동

수업	이수과목	1학기	
		2학기	프랑스어(FLE, DELF A1), 기업 커뮤니케이션 (corporate communication), 영미-태평양 문화 (Anglo-Pacific culture and civilization), 북아메리카 문화 소개(Introduction to North American civilization)
	수업방식	TD(소규모, 토론 수업), CM(대형 강의, 이론 중심)	
	시험방법	객관식, 서술형, 기사 읽고 질문에 답하기(서술형), 듣기, 말하기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인지 프랑스어로 진행되는 수업인지 잘 확인하고 수강 신청하기, 수업 방식도 확인하기	
그 외 활동 (해당되는 경우 작성)	동아리		
	문화프로그램	K-pop party	
	기타	Green party (대동제 같은 가장 큰 축제)	
교내편의시설	도서관, 식당, 마트, 약국, 은행, 버스정류장 등등		

2. 귀국 준비

기숙사/숙소 (기숙사참고사항, 퇴실 절차, 납부방법 및 시기)	<p>여기는 기숙사 관련 업무가 파견교의 소관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CROUS 라는 기숙사 업체가 따로 담당합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으로 많은 CROUS의 기숙사들이 있습니다. 저희 전북대 학생들은 그 중 JEAN JOUZEL 이라는 기숙사에 배정되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파견 온 학생들의 여러 기숙사와 비교를 해보니 매우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 4년 정도 되어서 깨끗하고, 화장실도 넓고 개인 주방도 방 안에 있습니다. (타 학교에서 오신 학생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공용 주방인 기숙사도 있고, 기내 화장실처럼 화장실의 크기가 매우 작은 곳도 있습니다.) 월세는 402.56유로로, 초반에는 67만원 정도였는데 현재는 환율이 올라 약 70만원입니다.</p> <p>기숙사를 들어오는 절차에서 승인이 자꾸 거절되어 저는 라로셀에 도착하자마자 입주를 하지 못하고 일주일 정도를 라로셀에 있는 호스텔과 호텔에서 지냈습니다.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너무 많고, 사이트도 다양해서 모두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 Mes service 라는 사이트에서 여권 정보와 파견교의 입학허가서 등을 요구했는데 그 서류가 승인이 나지 않아 입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와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제출한 다른 전북대 학생은 승인이 나서 9월 1일부터 바로 입주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운으로 승인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p>
---	---



	<p>학교에서 오신 분들도 승인이 나지 않아 호스텔에서 며칠 동안 지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입주하시기 전에 이런 서류들을 미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저도 몇 주 전부터 신청을 해봤는데 10번 이상 거절당했습니다. 그래도 늦게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 상황이 심각해져 파견교 대학 총장님과 관련 직원분들이 회의를 하였고, 그 사이트에 전화하여 바로 서류 승인해주셨습니다. CROUS 리셉션이 Antinea라는 기숙사 로비에 있기 때문에 기숙사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월세도 냅니다. 본인 이름과 기숙사 명 말하고 카드 단말기로 결제합니다. 매월 10일에 내라고 메일이 오긴 했지만 그 달 말일까지 결제하면 된다고 합니다.</p>
<p>각종 해지 사항 (보험, 은행 등)</p>	<p>먼저 핸드폰 요금을 해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SNCF 라고 한국으로 치면 코레일 같은 회사가 있는데 저는 이곳의 구독권을 구매하여 프랑스 여러 도시를 다녔습니다. 이 구독권은 한 달에 한 번 79유로를 지불하면 무제한으로 0원으로 여러 도시를 갈 수 있습니다. (0원 티켓이 파리, 낭트, 보르도 같은 큰 도시를 자주 뜨는데 소도시는 보통 잘 없습니다.) 구독권을 구매한 이유는 보통 라로셀에서 파리까지 가는데 보통 40~1n0 유로 정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독권을 해지해야 합니다. 저는 참고로 REVOLT라는 은행을 이용했습니다. 은행을 해지할 수 없는 이유는 기숙사 퇴실을 하면 보증금이 프랑스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예외적으로 CAF 라는 프랑스 국가에서 주는 주택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원래는 매월 월세비에서 몇 프로정도 감면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처리가 느린 프랑스는 프랑스에 있는 동안 감면받지 못한 금액을 프랑스 계좌로 송금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10월에 신청했지만 12월 월세 지불 때도 감면 받지 못한 걸 보면 귀국하고 보조금을 받을 것 같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신청하고 왔는데 기간을 정해놓고 왔기 때문에 따로 해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p>
<p>기타참고사항</p>	

3. 소감문 (1페이지로 작성, 맑은 고딕, 10포인트, 왼쪽 정렬)

<p>파견교에 대한 정보 및 숙소에 대한 정보 (캠퍼스, 주변환경 등)</p>	<p>라로셀 대학은 1993년에 설립된 공립 대학입니다. 시내 바로 옆에 위치하여 생활과 학업이 편리합니다.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한국어학과에서 다양한 한국 관련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고, 학생들이 한국인과 친해지고 싶어합니다.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한국 대학교의 과잡을 입고 다니는 학생들도 종종 봤습니다.) 그리고 시간표가 임시로 변경되니 학교 앱 스케줄 표를 자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숙사에서 5분 정도 걸으면 바로 바다가기 때문에 살기에는 매우 좋습니다. 시내도 걸어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라로셀은 정말 안전하고 친절한 도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매치기를 당해본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트 직원부터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모두 친절합니다. 한국에서 느낀 적 없는 낯선 이에 대한 친절과 따뜻함이 있는 도시입니다.</p>
<p>날씨, 숙소, 식사, 비용(물가) 등에 대한 정보</p>	<p>9월, 10월에는 습기가 적고, 매우 시원하고, 미세먼지가 없어 깨끗하고, 해가 9시쯤 지고, 비가 자주 오지 않아 밖에 앉아만 있어도 행복한 날입니다. 11월, 12월에는 비가 자주 오고 4, 5시면 해가 집니다. 12월인 지금 기온은 7도에서 최고 15도 정도 됩니다. 저는 기숙사 매우 만족합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Jean Jouzel은 0층부터 4층까지 있는 건물이고, 꽤나 넓습니다. 주로 저는 라로셀에서는 해먹으려고 합니다. 학교 내에 있는 작은 까르푸 마트는 걸어서 13분 정도, 학교 밖에 있는 대형 까르푸 마트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도 라로셀은 저렴한 편입니다. 파리는 같은 까르푸 마트도 라로셀 까르푸보다 비쌉니다. 작은 도시로 갈수록 저렴합니다. 그래도 햄버거 세트에 평균 12유로, 피자 한 판에 15유로 정도 합니다. 하지만 까르푸 마트에서 장을 보면 삼겹살 작은 사이즈로 6줄이 5.45유로, 작은 바나나 한 송이 0.99유로, 방울 토마토 한 끼용 0.99유로, 바게트 0.91유로, 물 1.5리터 0.25~0.66유로, 양배추 한 통 2.3유로 정도 하기 때문에 장 봐서 해먹는 것이 훨씬 절약할 수 있습니다.</p>
<p>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에 대한 정보</p>	<p>저는 치아 교정을 끝내고 유지 장치만 부착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유지 장치가 두 번 떨어져 치과에 두 번 방문한 적 있습니다. 프랑스 보험이 없어 한국 돈으로 약 4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에 방문했을 때는 무료로 해주셨습니다. 원래 병원 진료는 최소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저는 다행히도 여기서 사귀 프랑스 친구의 지인 분이 하시는 치과에 전화하여 상황을 말했더니 바로 예약을 해주셔서 비교적 빠르게 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p>
<p>사전 준비와 현지 생활과의 차이, 문화충격 등</p>	<p>사전 준비는 블로그 통해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문화 충격이었던 것은 노상방뇨가 많고, 사람보다 자전거가 우선이라 인도보다 자전거 도로가 넓은 점입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님들도 지각을 자주 하십니다. 팀 문화를 걱정했었는데 팀 문화 없습니다.</p>
<p>파견교 국제교류부 (진행되는 프로그램, 도움받았던 내용 등)</p>	<p>교환 프로그램 설명회와 OT, 그리고 프랑스 교환학생을 위한 설명회가 도움이 됐습니다.</p>
<p>파견교환학생 관련 건의사항 또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p>	<p>돈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경험 무조건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p>



파견교환학생 결과보고서

성명		전북대 소속 (학과명)	
해외 파견대학	프랑스 / 라로셀대학	해외파견대학 전공	전공 없음
파견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1학기 <input type="checkbox"/> 1년		
학기 시작일	2025/09/01	학기 종료일	2025/12/19
출국일	2025/08/28	귀국일	2026/01/07

1. 수업 및 교내외 활동

수업	이수과목	1학기	프랑스어 FLE A1 corporate communication culture et civilisation anglo-pacifique 1 introduction a la civilisation nord-americaine
		2학기	
	수업방식	대면수업/ 대형 강의식인 수업도 있고, 팀별로 하는 수업도 있음	
	시험방법	A1같은 경우 델프처럼 봄 / 나머지는 쪽지시험 객관식으로 보는 것도 있고, 서술형으로 보는 것도 있고 논술형으로 보는 것도 있음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영어로 수업하는지 불어로 수업하는지 꼭 찾아보고, 수강 신청은 한 달 내내 진행되니 이 수업이 나와 맞는지 대면으로 들어보고 결정하길 바람! 영어로 수업한다고 적혀있지만 막상 불어로 진행되어 드럽했음. 강의계획서랑 다를 수 있으니 수강 정정 기간에 들어볼 것	
그 외 활동 (해당되는 경우 작성)	동아리		
	문화프로그램	교환학생을 위한 친목프로그램이나 언어 교환 프로그램, 축제 및 party가 많음. 주에 2-4번 정도 있음	
	기타		
교내편의시설	편의점 같은 작은 마트, 약국, 자판기, 간단한 밥집, 학식 먹는 곳, 패스트푸드점		

2. 귀국 준비

기숙사/숙소 (기숙사참고사항, 퇴실 절차, 납부방법 및 시기)	기숙사마다 월세가 다르지만 내가 살았던 곳은 월 70만원, 가장 비싼 곳이었음. (CAF안함. CAF받는 애들 보면 월세가 30-40만원정도로 인하됨) 월세는 해당 달에만 납부하면 됨. 기숙사입주는 무조건 9.1 이후, 퇴실은 12.31전에 해야 해서 그 전후의 숙박은 알아서 해결해야함. 퇴실할 때에는 퇴실 날짜를 고르고 정해진 시간에 퇴실 및 키 반납하면 됨. 중간 중간 2번 정도 방 검사하러 옴. 청소가 잘 안 되어있으면 50유로 정도의 패널티 부과 (약 8-9만원)
각종 해지 사항 (보험, 은행 등)	-현지 프랑스 유심을 개통했었기에 귀국 당일에 해지할 예정. -유학보험은 기간을 넉넉히 설정해두었고, 날짜에 맞추어 자동 해지 예정 -유학생을 위한 TGV max라고 정기권이 있는데, 그것도 귀국 직전 해지할 예정
기타참고사항	프랑스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문제없지만 개설하는 것이 도움 됨. n26이나 레볼루트를 많이 이용하는데, 레볼루트는 온라인으로도 금방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 와서 필요할 때 개설해도 됨.



3. 소감문 (1페이지로 작성, 맑은 고딕, 10포인트, 왼쪽 정렬)

<p>파견교에 대한 정보 및 숙소에 대한 정보 (캠퍼스, 주변환경 등)</p>	<p>학교랑 기숙사까지는 버스타고도 20분, 걸어서도 20분 걸림. 학식은 학생증이 있으면 더 저렴하게 이용가능하고 학교 옆에 작은 마트, 버거킹, 맥도날드 등이 있음. 학교에는 곳곳마다 다양한 자판기가 비치되어 있음. 기숙사는 다른 몇 개의 기숙사와 달리 개인 주방이 있어서 편했지만 전자레인지가 없음 (공용주방이 있는 기숙사에는 전자레인지가 있음). 모든 기숙사가 1인 1실이고 기숙사가 여자/남자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p>
<p>날씨, 숙소, 식사, 비용(물가) 등에 대한 정보</p>	<p><날씨> 라로셀은 파리나 위쪽 도시보다 따뜻함. 겨울에도 영하권으로 내려가지 않고 보통 7-15도 사이임. 흐린 날이 대부분이었고 10월 전까진 해가 엄청 늦게 지며 밤 9-10시에도 밝았음. 맑았다가도 갑자기 비바람이 내리는 경우가 많았음 그래도 한국보다 따뜻하고 기온의 변화가 크지 않음.</p> <p><숙소> 모든 기숙사가 1인 1실.내가 거주한 기숙사는 다른 기숙사에 비해 훨씬 넓고 1인실에 개인 주방까지 있어서 좋았음. 수납 공간도 많고 화장실도 넓어서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음.</p> <p><식사> 원래도 빵과 밀가루를 정말 좋아했지만, 프랑스에는 먹을 것이 빵 뿐이라 질렸음... 그리고 양식이 생각보다 입에 맞지 않아서 한식집을 찾아가거나 기숙사에서 한식을 자주 해먹음. 프랑스 요리가 나쁘지도 않고 한국인 입맛에 안 맞는 건 아니지만 모든 주식이 밀가루라 힘들었음. 학식은 학생증이 있으면 3.3유로로 (약 6천원) 사먹을 수 있음.</p> <p><비용> 한국보다 물가가 훨씬 비쌘. 그치만, 라로셀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었음. 그러나 외식 한 번 하면 인당 3-4만원은 기본이고 생필품이 너무 비쌘음. 식료품점은 그나마 저렴한 편이라 (그마저도 한국이랑 비슷하거나 한국보다 비쌘) 외식을 거의 안 하고 기숙사에서 밥 해먹음.</p>
<p>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에 대한 정보</p>	<p><의료> 웬만한 병원이 모두 예약제임. 그래서 아무리 당장 아파도 당일에 병원을 갈 수가 없어서 아파도 병원을 안 갔음. 약국 약도 너무 비싸서 한국에서 종류 별로 약을 가져오는 것을 추천</p> <p><은행> 은행은 업무 처리가 한국보다 훨씬 느리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계좌 개설함. 레볼루트 라는 어플 사용.. 프랑스 와서도 쉽게 개설할 수 있음.</p> <p><교통> 도시마다 버스 가격이 다르지만 라로셀에서는 버스가 1.5유로였음. 기차는 촉박하게 예매하면 평소보다 가격이 훨씬 비쌘. TGV정기권(달에 79유로 약 15만원)를 내면 저렴하거나 무료 티켓으로 탈 수 있음. 기차를 두 번만 타도 79유로가 훨씬 넘기 때문에 정기권을 끊는 것을 추천함</p> <p><통신> 프랑스에선 두 가지의 통신사가 있는데, 하나는 저렴하지만 좀 느리고 지하철이나 사람 많은 곳에선 안 터짐. 하나는 비싸지만 잘 터진다고 함. 가격 차이가 3-4배라 저렴한 통신사로 개통했음 (달에 3만5천원 정도) 그러나 정말 데이터가 잘 안 터지는 곳이 많음</p>
<p>사전 준비와 현지 생활과의 차이, 문화충격 등</p>	<p>프랑스인들은 영어를 대부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그 정도는 아니었음. 특히,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는 먼저 영어로 말 거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제일 불편했던 건 공용 화장실이 대부분 없고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대부분 돈을 내야했음. 그리고 화장실도 남녀 공용이고 숙박도 남녀 공용인 경우가 많아서 처음엔 적응하기 어려웠음. 그리고 분리수거를 따로 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 등을 대부분 한 번에 모아서 버려서, 이건 편했음. 카페나 음식점을 가면 종업원이 먼저 말을 걸 때까지 기다렸다가 종업원이 오면 그때 주문해야함. 계산도 마찬가지로. 먼저 직원을 부르면 무례한 행동이라고 함.</p>